

《엄마의 초상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 엄마.
하지만 그게 엄마의 모습 전부일까요?
어쩌면 내가 아는 엄마의 모습 뒤에는
상상치도 못할 미영씨가 있는 게 아닐까요?
소파에 누워 티브이를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엄마의 일상은 지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미영 씨는 동화 속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재밌는 사람이 아닐까요?
엄마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지연 |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HILLS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였습니다. 《엄마의 초상화》는 첫 번째 창작그림책입니다. 익숙한 엄마의 모습을 되새기고 그 이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이 전하는 잔잔한 재미와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라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엄마의 모습 뒤에는
낯선 미영 씨도 살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엄마도 '미영 씨'라는 이름이 있지요.

엄마의 하루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영 씨는 아주 재밌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엄마는 생선 머리만 먹는 미식가인 것 같지만
미영 씨는 두려움을 모르는 탐험가일 수 있지요.

엄마는 지지 않는 꽃처럼
우리를 응원해 줄 것 같아도

미영 씨는 언젠가 꽃을 찾아
떠나 버릴지도 몰라요.

엄마는 여행을 꿈꾸었고
미영 씨는 드디어 결심했지요.

그곳에서 엄마는 마음에 쏙 드는
미영 씨의 초상화를 그려 왔답니다.

익숙한 엄마의 모습 뒤에는
낯선 미영 씨도 살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엄마도 '미영 씨'라는 이름이 있지요.

엄마의 하루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영 씨는 아주 재밌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엄마는 생선 머리만 먹는 미식가인 것 같지만
미영 씨는 두려움을 모르는 탐험가일 수 있지요.

엄마는 지지 않는 꽃처럼
우리를 응원해 줄 것 같아도

미영 씨는 언젠가 꽃을 찾아
떠나 버릴지도 몰라요.

엄마는 여행을 꿈꾸었고
미영 씨는 드디어 결심했지요.

그곳에서 엄마는 마음에 쏙 드는
미영 씨의 초상화를 그려 왔답니다.